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5년 4분기

공약 이행률 90% 달성

고창군은 지난 16일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열어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이행평가단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매년 공약이행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8기 고창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공약사업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완료, 44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되어 총 64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특히, 2025년 12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90%로 전년도(71.33%) 대비 18.67% 상승해 크게 향상된 성과를 기록했다. 이행을 향상에는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통합보훈회관 이전 신축 △수산물 산란·서식장 조성 등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의 진척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80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실무 부서와 평가단이 함께 점검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여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장에인복지관

2026년 사업설명회 개최

정읍시장에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이용자 중심의 소통 행보를 강화하며 2026년 준비에 본격 나섰다.

복지관은 지난 16일 고평두리스포츠센터 강당에서 이용자와 보호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애인복지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복지관 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복지관 내 7개 팀에서 추진할 총 63종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했다. 복지관은 이날 2026년 핵심 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민선 8기 행정 역량 '우수' 입증

## 부안군, 2025년 기관평가서 역대 최고 성과 거둬... 총 42건 수상 실적 달성

부안군은 2025년 기관평가에서 총 42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개년 기관평가 수상 실적 평균인 29.75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평균 대비 약 41% 증가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단순한 연도별 편차를 넘어 기관평가에 대한 대응 체계와 전략 전반이 실질적으로 고도화됐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개최한 2025년 기관평가 마스터플랜 대응 보고회를 기점으로 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기획 중심의 선

제적·전략적 대응을 추진해 온 행정 운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또 각 부서별 자체 성과 분석과 취약 지표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평가 대응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평가 분야에서 고령 성과를 거둬 기관평가 수상 건수에서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관상,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지자체 합동평가 군부 1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A등급, 토지·지적 업무 종합평가 우수, 산불예방·대응 평가 최우수, 시군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집중안전점검 평가 우수, 치매

안심센터 운영평가 A등급 등이다.

특히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 성과를 크게 끌어올렸고 기관평가 도입 이후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전략·실행·관리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행정 운영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성과를 민선 8기 행정의 결실로 보고 성과 중심 행정 체계를 더욱 고도화 방침이다.

단기적 평가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평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정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전국 최고 살림꾼 지자체' 로 인정

##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고강도 재정 혁신 통한 1515억 예산 절감

정읍시가 전국 최고의 '살림꾼'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15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0억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제출된 186건의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3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정읍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행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과감한 구조 혁신을 단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혁신을 통해 절감한 예산만 총 1515억원에 달한다.



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혁신의 궤를 빼 들었다. 첫째, 조직 효율화를 위해 자연 감소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 인력 58명을 감축, 고정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둘째,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 보조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2022년 상반기 대비 4배가량 확대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든든한 재정 안전판을 구축했다.

셋째, 부서별 전문직 공무원의 기술 감사와 11개 분야 외부 감사관 도입을 통해 '사전 감사'를 강화했다. 이는 정읍시 재정의 '방과제' 역할을 하며 총 4896건의 사업을 검토, 62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사업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예산을 이끈다'라는 원칙 아래,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편성 전 각종 사업을 '일점'에서 다시 점검했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긴급성·실효성 검토를 통해 국·도비 확보 예산 또한 과감히 간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평가 '가' 등급 영예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북 군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가(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이달 중 교부 받게 된다.

고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1차 지급에서는 지급대상 5만206명 가운데 4만19819

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지급률 99.2%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총 111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0억3000만원이 실제 사용돼 98.7%의 사용률을 달성했다.

이어진 2차 지급에서도 지급률 98.8%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47억8000만원, 사용액은 46억5000만원으로 집계돼 97.3%의 사용률을 달성했다.

특히 고창군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군은 장기요양시설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했으며, 각 마을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신청 가구를 확인하는 등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박상준, '소백 장사' 등극

## '위더스제약 문경오미자장사 씨름대회'서... 생애 첫 장사 타이틀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감독 박희연)의 박상준 선수가 생애 첫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모래판의 주인공이 됐다.

정읍시는 지난 15일부터 경북 문경시에서 열리고 있는 '위더스제약 2025 문경오미자장사 씨름대회' 소백급에서 박상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문경시 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박상준 선수가 활약은 눈부셨다. 대회에서 소백급(72kg 이하) 경기에 출전한 박상준은 16강에서 손희찬(증평군청)을, 8강에서 김성하(청원특례시청)를 차례로 꺾으며 파죽지세로 올라갔다.

이어지는 4강 준결승에서도 홈팀의 응원을 등에 업은 김우혁(문경시청)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강호 전성근(영월군청)이었으나, 박 선수는 침착한 경기 운영과 화려한 기술을 앞세워 최종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며 생애 첫 장사 인증서를 품에 안았다.

이번 우승은 단풍미인씨름단의 최근 상승세를 방증 찍는 결과로 더욱 의미



가 깊다. 씨름단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김찬영 선수의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의성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는 정상호 선수가 한라급 3위를 차지하는 등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둬 '씨름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박희연 감독은 "힘든 훈련을 묵묵히 이겨내 준 선수들과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읍 고성 '상소산성' 발굴 현장 점검

## 권익현 부안군수, 도 기념물 지정 위한 조사 방향 논의 등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5일 부안읍성의 고성으로 밝혀진 상소산성 발굴 현장에 찾아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발굴조사단(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발굴조사단으로부터 상소산성 조사 성과와 향후 조사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안전지침 준수 여부 및 미비점 등을 점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상소산성은 산 정상 평탄지에 축조된 길이 332m 테피식 토성지와 이 토성지를 감싸고 있는 길이 810m의 중성, 조선시대 축조된 부안읍성인 외성의 3중 구조를 갖춘 성곽으로 조사됐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성 내부에서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고려~조선시대 외편이 다량 수습돼 삼국시대에 초축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관' 등의 명문기와와 제철 관련 부산물과 목탄이 섞인 퇴적토가 발견돼 주목을 끌었다.

제철 관련 유구는 조사지역 내 구릉 상부를 기준으로 구릉경사면을 따라



퇴적 상태로 발견됐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철 관련 부산물은 노내재, 단면상 기포가 형성되거나 유리질화된 유동재, 단야 공정 흔적의 물방울 모양 입상재와 미세 철편 등이 확인됐다.

이처럼 제철 관련 부산물이 다양하고 많은 양이 확인됐다는 점은 상소산성 내 제련과 정련, 단야(鍛冶) 등 모든 과정이 이뤄진 시설이 자리했던 것을 입증한다. 또 제철 관련 유구에서 '~관' 자명 통일신라 기와편이 함께 발견돼 통일신라에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지역에서 통일신라 제철 유적으로는 전주 칠방유적 1호 폐 기장이 유일할데 이번 상소산성에서 통일신라 제철 유적이 발견된 것은 매우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